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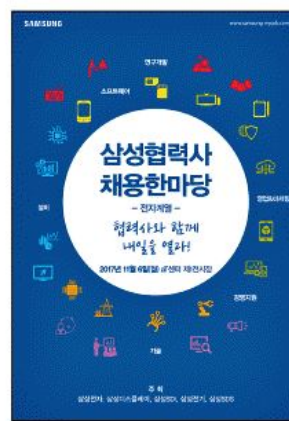
삼성전자, 내달 ‘삼성 협력사 채용 한마당’

삼성전자가 삼성디스플레이·SDI·전기·SDS와 함께 다음달 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전자계열 협력사 120여개가 참여하는 ‘2017 삼성 협력사 채용 한마당’을 개최한다.

2012년부터 시작된 ‘삼성 협력사 채용 한마당’은 구직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협력사에게는 우수 인력 채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실시되는 행사다.

이번 채용한마당은 ▷연구개발 ▷SW ▷경영지원 ▷영업·마케팅 ▷설비 ▷기술 등 6개 직군으로 구분해 채용관을 운영한다. 또한 구직자의 성공적인 취업을 돕기 위해 이력서와 면접 컨설팅부터 구직자가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의 현장 매칭까지 취업에 관한 종합정보와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는 ‘취업 토탈 솔루션관’도 마련된다.

특히 ‘취업 토탈 솔루션관’에서는 삼성전자 등 전자 계열사의 경력컨설팅센터 소속의 임직원 컨설턴트 20여명이 현장을 찾은 구직자들과 1대1 상담을 통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업을 추천하고, 해당 기업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며, 현장에서 기업 관계자들과 연결도 시켜 줄 예정이다.

취업 희망 기업의 정보 검색과 면접 신청은 삼성 협력사 채용 한마당 홈페이지(<http://samsung-myjob.com>)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사전에 홈페이지에 면접 희망을 접수하면 전문 컨설턴트가 구직자의 희망과 매칭해 적절한 기업을 추천해주기도 한다. 온라인 사전 신청 외에도 당일 행사장에서 직접 면접 신청도 가능하다.

정순식 기자/sun@heraldcorp.com

삼성 협력사 채용 한마당 개최

■ 삼성전자는 오는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전자 계열 협력사 120여 개가 참가하는 '2017 삼성 협력사 채용 한마당' (포스터)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행사는 구직자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협력사에는 우수인력 채용을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2012년부터 열리고 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등



전자계열사가 함께 주최한다.

올해 채용 한마당은 연구·개발(R&D), 소프트웨어(SW), 경영지원, 영업·마케팅, 설비, 기술 등 6개 직군으로 구분돼 채용관이 운영된다. 이력서 작성과 면접 컨설팅 등 구직자들이 취업의 궁금증을 종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취업 토탈 솔루션관'도 선보인다.

권도경 기자 kwon@

삼성전자 '협력사 채용한마당' 개최

내달 6일, 120여개 업체 참여

삼성전자와 전자계열사, 협력업체들이 참여하는 '2017 삼성 협력사 채용 한마당'이 내달 6일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다.

행사에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등 계열사와 이들 협력사 120여개가 참여한다. 2012년부터 시작된 '삼성 협력사 채용한마당'은 구직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협력사에게는 우수 인력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되는 행사이다. 이번 채용한마당은 ▲연구개발 ▲SW ▲경영지원 ▲영업·마케팅 ▲설비 ▲기술 등 6개 직군으로 구분해 채용관을 운영한다. 또한 구직자의 성공적인 취업을 돕기 위해 이력서와 면접 컨설팅부터 구직자가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의 현장매칭까지 취업에 관한 종합정보와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취업 토탈 솔루션관'이 마련된다.

취업 토탈 솔루션관에서는 삼성전자

등 전자 계열사의 경력컨설팅센터 소속의 임직원 컨설턴트 20여명이 현장을 찾은 구직자들과 1대1 상담을 통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업을 추천하고, 해당 기업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며 현장에서 기업 관계자들과 연결도 시켜줄 예정이다. 기업 정보를 구직자 스스로 검색할 수 있는 '셀프 매칭관', 취업 특강 등 구직자들을 위한 다양한 부스도 운영된다.

취업 희망 기업의 정보 검색과 면접 신청은 채용 한마당 홈페이지(<http://samsung-myjob.com>)를 통해 할 수 있다. 사전에 홈페이지에 면접 희망을 접수하면 전문 컨설턴트가 구직자의 희망과 맞는 적절한 기업을 추천해주기도 한다. 온라인 사전 신청 외에도 당일 행사장에서도 직접 면접 신청이 가능하다. 삼성은 2012년부터 중소·중견 협력업체가 우수 인재를 만날 수 있도록 '채용한마당'을 열어 매년 2000여명의 신입·경력직을 현장에서 채용한다.

강희종 기자 mindle@

삼성전자, 협력사 인력확보 지원 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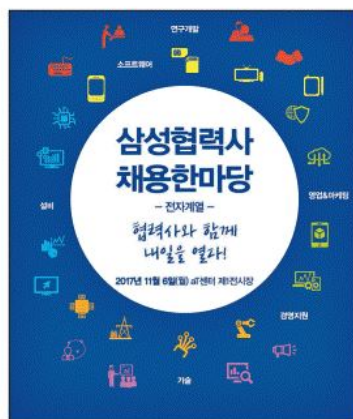
내달 6일 '채용 한마당'

삼성전자가 협력사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대규모 채용행사를 개최한다.

삼성전자는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와 함께 다음달 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전자계열 협력사 120여개가 참여하는 '2017 삼성 협력사 채용 한마당'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2012년부터 시작된 협력사 채용 한마당은 삼성전자가 협력사 우수 인력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행사다.

이번 행사는 △연구개발 △SW △경영지원 △영업·마케팅 △설비 △기술 등 6개 직군으로 구분해 채용관을



운영한다. 또한 이력서와 면접 컨설팅부터 구직자가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의 현장 매칭까지 취업에 관한 종합 정보와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취업 토탈 솔루션관'이 마련된다.

특히 취업 토탈 솔루션관에서는 삼성전자 등 전자 계열사의 경력컨설팅 센터 소속 컨설턴트 20여명이 현장을 찾은 구직자들과 1:1 상담을 통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업을 추천하고, 해당 기업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현장에서 기업 관계자들과 연결도 시켜줄 예정이다.

취업 희망 기업의 정보 검색과 면접 신청은 '삼성 협력사 채용 한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사전에 홈페이지에 면접 희망을 접수하면 전문 컨설턴트가 구직자 희망과 매칭해 적절한 기업을 추천해주기도 한다. 당일 행사장에서도 직접 면접 신청이 가능하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